

바른 ICT 연구 보고서

Barun ICT Research Review



– 2017 스마트폰 이용행태 보고서 –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바른 ICT 연구소
Barun ICT Research Center

서 문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소장 김범수 입니다.

인간의 역할과 사회의 모습이 크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어가며, 우리 바른ICT연구소는 다가오는 스마트 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변화의 중심에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스마트 폰 기기의 사용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진입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지금 이순간에도 천천히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AI는 몰라도 애플의 아이폰을 통해 Siri와 대화하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IoT는 몰라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집안의 가전제품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실제 SKT의 누구(NUGU)와 KT의 지니(Gini)의 가입자수는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의 중심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삶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가치관의 변화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보격차, 스마트 기기에 대한 과몰입, 과의존과 같은 부작용도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바른ICT연구소는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 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분석작업을 통해 올바른 ICT 문화확산을 지원하고자 본 연구보고서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바른ICT연구소의 노력과 연구가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투명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에 소금과 같은 역할로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

닐슨데이터분석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스마트폰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과 휴대의 용이성으로 인해 단순히 하나의 통신기기를 넘어 일상생활의 중추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동시에 스마트 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음

—

대다수의 연구가 설문조사 기반이라는 점에서 스마트 폰 사용자의 정확한 이용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2. 조사 목적

기존의 주관적 자료조사 및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스마트 폰 이용실태에 관한
보다 객관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3. 조사 대상

전국의 만 7세 이상 6,117명

4. 조사 기간

2016년 6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14주 간)

5. 조사 기관

조사 주관 기관: 바른ICT연구소
자료수집 대행 기관: 닐슨코리안클릭

6. 조사 항목

구분	세부항목	분석단위
스마트 폰 사용 통계	카테고리별 이용시간(초)	개인
	카테고리별 재방문일수 (일)	개인
	카테고리별 페이지뷰	개인
	카테고리별 실행회수	개인
인구통계정보	성별	개인
	연령	개인
	직업	개인
	월 가구소득	가구
	학력	개인
	거주지역	가구
	혼인여부	개인

7. 표본 특성

구분	항목	사례 수	비율 (%)
성별	남성	2,965	48.47
	여성	3,152	51.53
연령	10대 이하	34	0.56
	10대	524	8.57
	20대	639	10.45
	30대	1,501	24.54
	40대	1,860	30.41
	50대	1,038	16.97
	60대 이상	521	8.52
직업	무직/기타	488	7.98
	블루칼라	691	11.3
	자영업	524	8.57
	전업주부	1,176	19.23
	학생	901	14.73
	화이트칼라	2,337	38.21
월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205	3.35
	100~299만원	1,335	21.82
	300~499만원	2,601	42.52
	500만원 이상	1,976	32.3
학력	고졸	1,413	23.1
	대졸	3,751	61.32
	대학 및 대학원생	408	6.67
	초중고등학생	545	8.91
지역	강원도	268	4.38
	경기도	1,250	20.43
	경상남도	305	4.99
	경상북도	289	4.72
	광주광역시	280	4.58
	대구광역시	329	5.38
	대전광역시	259	4.23
	부산광역시	540	8.83
	서울특별시	1,164	19.03
	세종특별자치시	15	0.25
	울산	204	3.33
	인천광역시	350	5.72
	전라남도	166	2.71
	전라북도	277	4.53
혼인여부	제주특별자치도	39	0.64
	충청남도	230	3.76
	충청북도	152	2.48
	미혼	1,954	31.94
	기혼	4,163	68.06
	합계	6,117	100

8. 앱 카테고리 분류

카테고리 대분류	카테고리 소분류
뉴스	뉴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
게임	롤플레잉 보드 시뮬레이션 액션 스포츠 슈팅 레이싱 퍼즐 어드벤처 게임기타
멀티미디어/엔터테인먼트	동영상 음악 라디오 사진 방송 만화 잡지 도서 유머 영화 엔터테인먼트기타
생활	날씨 성인정보 의료/건강 지도검색/네비게이션 교통 맛집/명소 패션/미용 할인/쿠폰/마일리지 결혼정보 여성/가정 비즈니스 개인 종교 유아 생활기타
금융/부동산	은행 증권 부동산 카드 금융기타
스포츠/레저/여행	스포츠 여행 및 숙박정보 휴양 및 놀이시설
직업/교육	학교 구인/구직 학원 교육정보
인터넷서비스	웹하드/데이터전송 검색 종합 인터넷서비스기타
유ти리티	데코레이션 마켓 위젯 보안/방화벽 유ти리티기타
소셜 미디어	카페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SNS 게시판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통합 커뮤니케이터

2017 상반기 연구 목록

1.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간,
지역별 Wi-Fi환경 따라 큰 차이
2. 너는 앓아서 검색하니?
나는 돌아다니며 검색한다!
3. 스마트-폰 중독?
중독이 아니라 이젠 생활이죠!
4. 스마트한 노인들이 몰려온다,
모바일 뱅킹 이용하는 한국의 실버 세대!
5. 스마트 폰 사용패턴으로 알아보는
부부탐구생활!
6. 고소득 가정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할까?
7. 스마트 폰,
일에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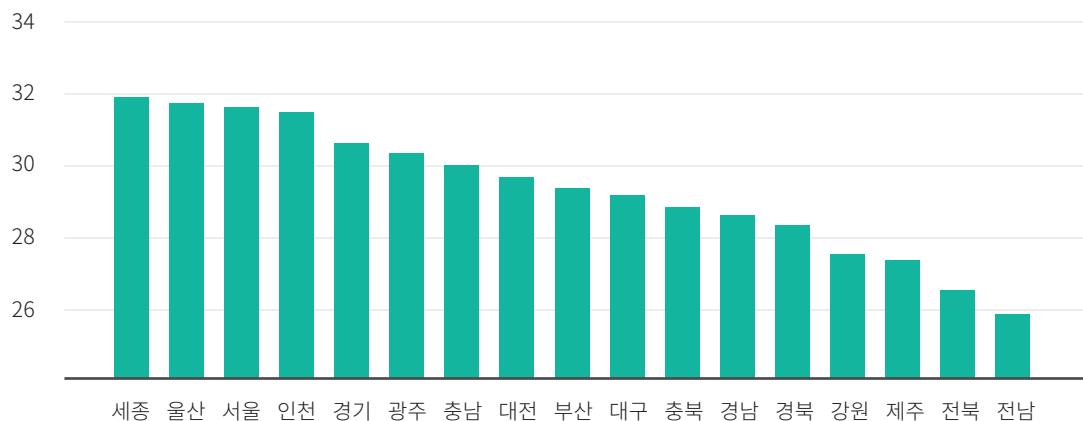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간, 지역별 Wi-Fi환경 따라 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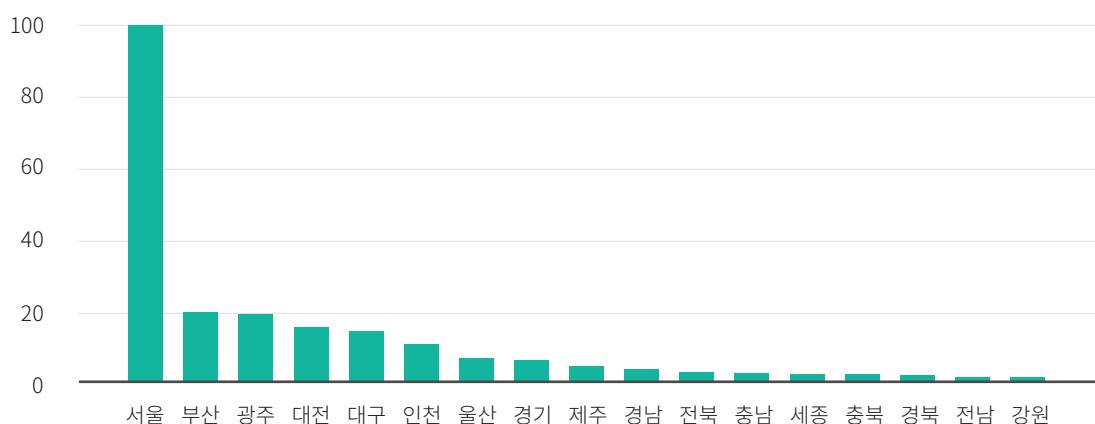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간, 지역별 Wi-Fi환경 따라 큰 차이

수도권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간, 비 수도권보다 주당 평균 2시간18분 길어
와이파이존 설치 편차로 지역 간 정보격차 문제 발생

< 지역별 평균 모바일 사용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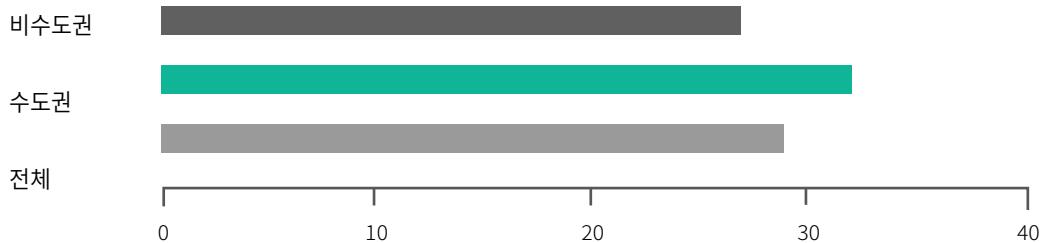


< 지역별 제곱킬로미터당 와이파이존 수 >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지역의 Wi-Fi(무선랜)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연령의 사용자를 기준으로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준면적(제곱킬로미터)당 와이파이존(Wi-Fi Zone)의 수가 많은 지역에서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이 많음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와이파이존이 많은 지역에서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더 활발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있었지만 실증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면적당 와이파이존의 수가 한 개 늘어나면 주당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간이 평균적으로 3분가량 늘어났다. PC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량도 면적당 와이파이존의 수에 영향을 받았으나 사용시간이 평균 28초 늘어나는데 그쳐 Wi-Fi환경이 PC 이용보다 모바일 이용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도권 / 비수도권 모바일 평균 이용시간 >



상대적으로 Wi-Fi 사용이 용이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경우 주당 평균 사용시간(31시간16분)이 비수도권(28시간58분)에 비해 약 2시간18분가량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적당 와이파이존의 수는 서울이 10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21개소)과 광주(20개소)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은 0.49개소, 전남은 0.39개소, 강원은 0.32개소에 불과했다. 각 지역별로 와이파이존 설치 편차가 심해 지역 간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보였다. 따라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지역별 쓸림현상을 감안해 와이파이존을 설치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의 모바일 사용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었다. 면적 당 와이파이존 수가 많지 않으나 조사대상자 평균연령이 37.6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가 지난해 6월27일부터 10월2일까지 전국의 6090명을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것이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각 지역별 인구대비 와이파이존 설치현황'과 통계청의 '지역별 면적' 자료를 참고했다.

chapter 2

너는 앉아서 검색하니?
나는 돌아다니며 검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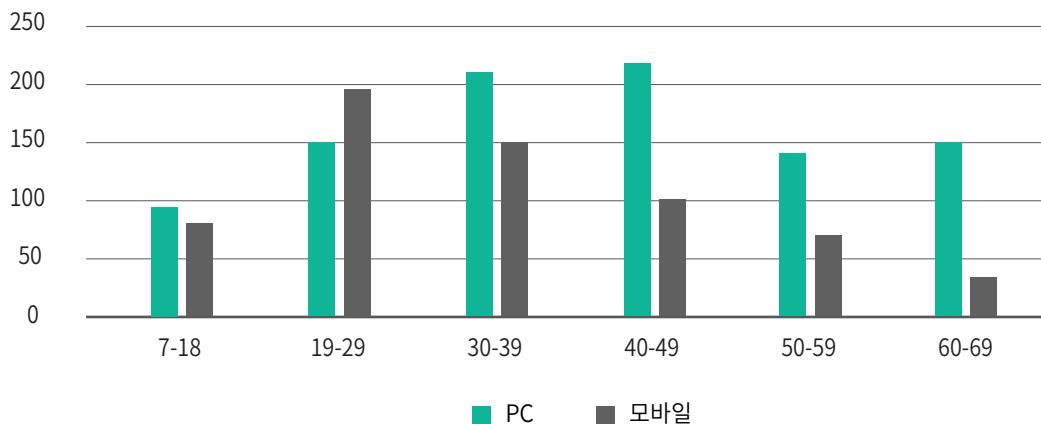
너는 앉아서 검색하니?

나는 돌아다니며 검색한다!

인터넷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연령별 PC/Mobile 이용시간 비교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고 활동적인 20대는 PC보다 스마트폰 활용시간 높아
활동적이지만,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60대 위한 스마트 폰 활용기술개발 중요

<연령별 PC / 모바일 인터넷 주당 평균 사용시간 (단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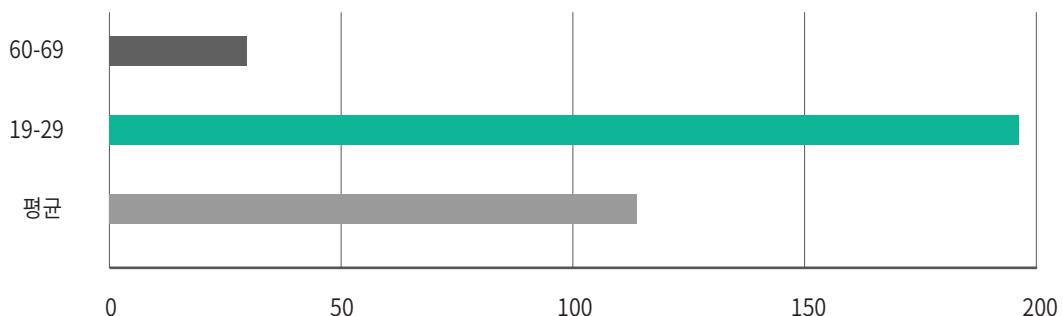


인터넷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연령별 PC/Mobile 활용행태를 비교한 결과, 연령에 따라 다양한 활용패턴이 도출되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지난해 6월27일부터 10월2일까지 전국의 6,09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Mobile 인터넷 및 PC 인터넷 사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20대(만 19-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PC 인터넷의 평균이용시간(180분/주당)이 Mobile 인터넷의 평균이용시간(112분/주당)보다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 동안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Mobile을 활용한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났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예측되어 왔으나,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실증 데이터로 플랫폼 별 사용량을 분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고 이동성이 높은 19-29세 사용자의 경우 Mobile 인터넷의 평균이용시간(196분/주당)이 PC 인터넷의 평균이용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스마트폰 활용에는 익숙하지만, 이동성이 떨어지는 30-4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PC 인터넷의 사용이 Mobile 인터넷의 사용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단순히 스마트폰의 연령별 활용능력뿐 아니라 취업여부 등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가 PC/Mobile 이용패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PC 인터넷과 Mobile 인터넷의 이용시간 격차는 스마트폰 활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60-69 세 노년층에서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Mobile 인터넷 평균이용시간은 주당 약 29 분이었으며, 이는 Mobile 인터넷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20대 평균이용시간(196분/주당)의 약 1/7정도에 머물렀다.

<연령별 모바일 인터넷 주당 평균 사용시간 (단위:분)>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보다 즉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Mobile 인터넷의 사용은 사실 지적 능력이 퇴화하고, 이동성이 높은 60대 이상 노년층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계층의 스마트폰 보급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촉구되며, 이들의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인지기능저하를 고려한 다양한 접근방법 및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chapter 3

스마트-폰 중독? 중독이 아니라 이젠 생활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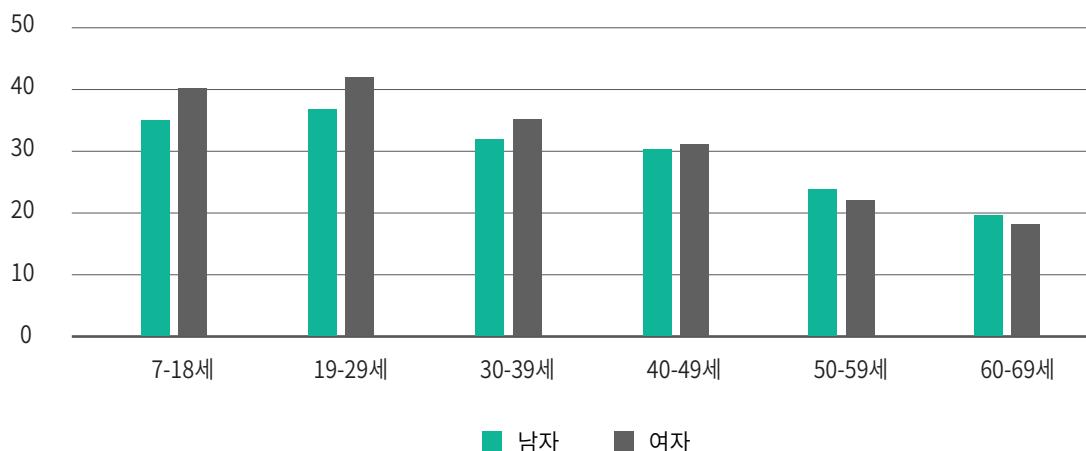


스마트-폰 중독?

중독이 아니라 이제 생활이죠!

초 중 고생 스마트-폰 사용량 부모세대와 큰 차이 없어
게임보다는 음악, 동영상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앱 사용에 집중
초 중 고생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시선정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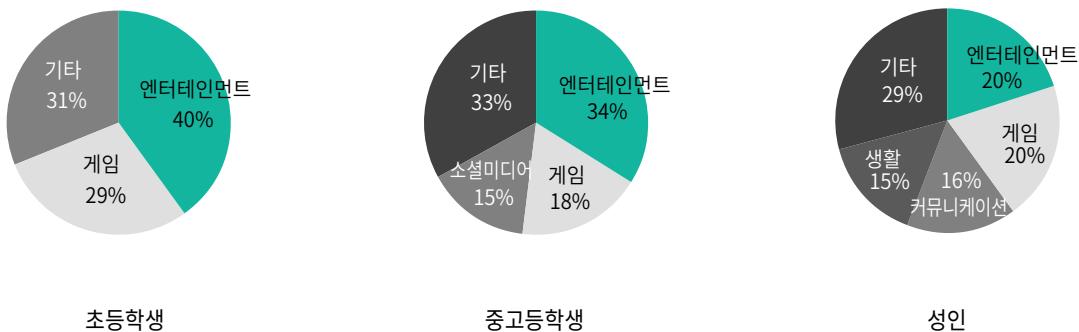
<성/연령별 스마트-폰 주당 평균 사용시간>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가 지난 2016년 6월 27일부터 2016년 10월 2일까지 14주간 전국의 만 7세이상 70세미만 6,090명의 스마트-폰 사용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생 스마트-폰 사용량이 주당 36.2시간(초등학생: 30.4시간, 중고등학생: 38.6시간)으로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스마트 폰 사용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수업시간 및 수면시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량도 주당 23.5시간으로 초 중 고등학생 스마트 폰 사용량의 약 2/3수준에 달하며, 특히, 부모세대인 30-40대의 경우 30대 평균 31.6시간, 40대 평균 29.3시간으로 자녀 세대와의 사용량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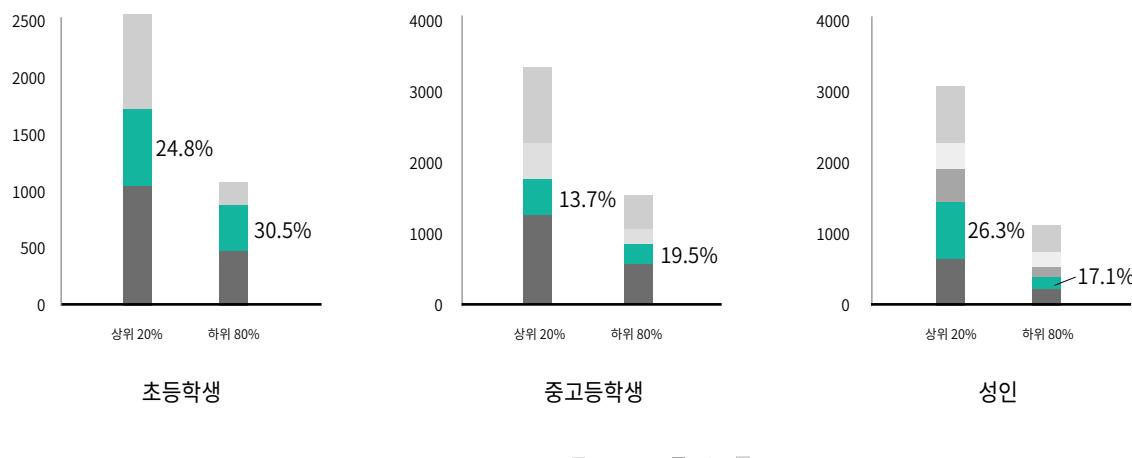
초등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테고리는 음악과 동영상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40.2%) 계열로 게임(28.7%)과 함께 전체 사용시간의 약 6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고등학생의 경우 엔터테인먼트(34.2%)와 게임(17.9%)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게임의 사용시간이 줄고 카페, 블로그,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15.6%)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분산된 형태의 사용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의 경우 여기에 커뮤니케이션과 생활영역이 추가되면서 영역별 이용시간은 줄고 이용분야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즉, 청소년에 비하여 성인은 보다 다양한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생/중고등학생/성인의 스마트-폰 사용 카테고리 별 이용비중현황>



한편, 과다사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용량 기준 상위 20% 학생들의 경우 하위 80% 학생들의 평균 사용시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주당 63.5시간 (초등학생: 53.8시간, 중학생: 66.2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학생들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을 스마트 폰 사용에 할애한다는 것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해당 학생들의 학습 및 수면 등 일상생활에 장애가 염려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학생에 대한 사용시간 제한과 같은 적절한 수준의 주의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상위20% vs. 하위 80% 스마트-폰 사용패턴 비교>



그러나, 과다 사용군에 속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평균적인 학생과의 스마트-폰 사용패턴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과다 사용군에 속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게임에 집중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체 스마트-폰 사용시간 중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29%→25%, 중 고등학생: 18%→13.7%). 반면, 성인의 경우 사용량기준 상위 20%에 속하는 과다 사용자의 게임비중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26.3%), 이는 성인이 초 중 고등학생에 비해 스마트-폰 과다사용자의 게임중독위험이 보다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나 공공기관의 게임중독예방 치유프로그램은 청소년위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는 향후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초 중 고등학생 및 성인의 사용패턴 차이 분석결과를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권한다. 이는 부모세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기준이 자녀세대와 다를뿐더러, 설령 자녀가 과다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화하는 사회에 아이가 생활하는 새로운 방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함은 부족함만 못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에 중요한 학업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다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부모에 의해 적절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에 앞서 먼저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량을 체크해 보는 지혜를 발휘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chapter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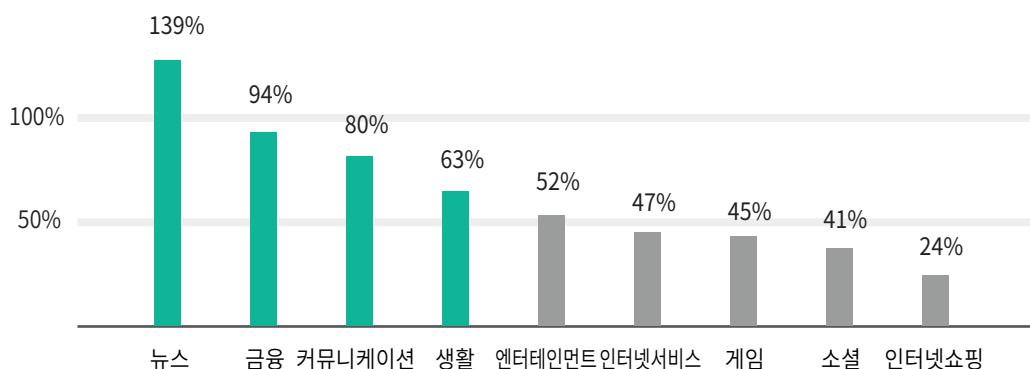
스마트한 노인들이 몰려온다, 모바일 뱅킹 이용하는 한국의 실버 세대!



스마트한 노인들이 몰려온다, 모바일뱅킹 이용하는 한국의 실버 세대!

타 연령층 대비 금융 앱 사용비중 높아
노년층, 스마트-폰 사용시간 적은 이유는 낮은 여가관련 앱 사용 때문
단, 학력차이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격차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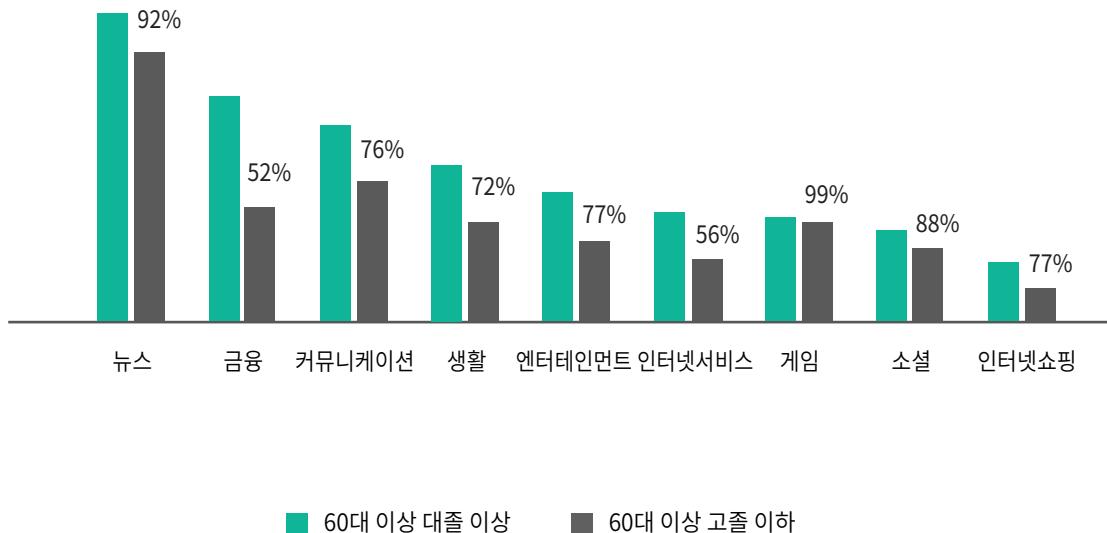
<고령층의 타 연령층 대비 카테고리 별 사용시간 비중>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에서 2016.06.27부터 2016.10.02까지 14주간 전국의 만 7세이상 6,090명의 스마트 폰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주당 평균시간(18.8시간)이 타 성인연령층(30.1시간) 대비 63%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다시 타 성인연령층(20대-50대) 대비 카테고리 별 사용시간 비중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뉴스 (139%)의 사용시간은 오히려 타 연령층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 (94%), 커뮤니케이션 (80%) 앱의 사용은 유사하거나 조금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쇼핑(24%), 게임(45%), 엔터테인먼트(52%)와 같은 여가관련 앱의 사용은 현저하게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노년층 스마트 폰 사용행태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년층 스마트 폰 사용시간이 저하된 인지능력 때문이 아닌 선호하는 앱 카테고리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령층의 경우 학력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시간 및 이용방법상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타 연령층의 경우 학력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시간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고졸 이하: 27.4시간, 대학재학 이상: 29.5시간),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이와 같은 차이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였고(고졸 이하: 16.8시간, 대학 재학 이상: 21.1시간), 특히 사용방법이 비교적 까다로운 금융 앱의 경우 학력에 따른 사용시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고령층의 학력에 따른 모바일 앱 사용시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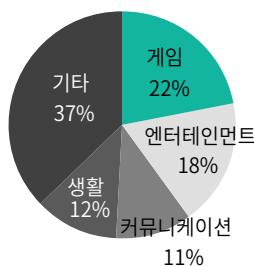
한편, 고령층의 스마트 폰 중독 위험은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사용시간 기준 상위 20% 사용자를 스마트 폰 중독 위험이 높은 과다사용자 그룹으로 분류하였을 때, 이들의 주당 평균 사용시간(41.8시간)이 타 연령층 대비(59.8시간)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카테고리 별 이용패턴 또한 보다 분산된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고령층 상위 20% 과다사용자 그룹은 하위 80% 일반 사용자 그룹보다 게임(6%→19%)과 엔터테인먼트(11%→16%) 앱의 사용 비중이 높고, 커뮤니케이션(21%→11%) 앱의 사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령층 과다사용그룹의 앱 카테고리 별 사용시간 비중은 타 연령층의 일반사용자 그룹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므로(게임: 22%, 엔터테인먼트: 18%), 고령층의 스마트 폰 중독위험이 매우 희박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 고령층 상위 20% vs. 하위 80% 스마트-폰 사용패턴 비교 >



고령층 상위 20% 사용자

고령층 하위 80% 사용자



성인 전체

이번 데이터 분석결과, 60대 이상 고령층 스마트 폰 사용은 비록 사용시간은 적지만 다양한 용도로 잘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령층의 사용시간 저하가 노년층의 인지능력 혹은 학습능력 저하에 따른 스마트 폰 활용능력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의 외부활동증가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과다 사용그룹의 스마트 폰 중독위험 또한 타 연령층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고령층의 경우 다른 세대에 비해 학력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상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노년층의 스마트 폰 사용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스마트 폰 사용교육에 있어 전체 사용자 집단이 아닌 특정 사용집단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사용교육이 필요하며, 둘째, 노년층의 신체기능 저하를 고려한 맞춤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즉, 노년층 스마트 폰 사용은 중독이 아닌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며, 학습이 아닌 접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hapter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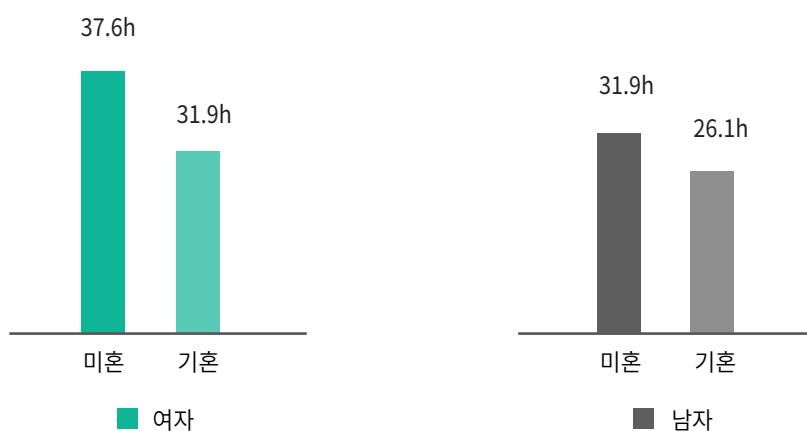
스마트 폰 사용패턴으로 알아보는 부부탐구생활!



스마트-폰 사용 패턴으로 알아보는 부부탐구생활!

기혼자 스마트 폰 사용시간 미혼자 대비 76%수준
결혼 후, 여성은 여가관련 앱 사용비중 ↓, 남성은 커뮤니케이션 앱 사용비중 ↓
기혼 남성과 여성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은 별다른 차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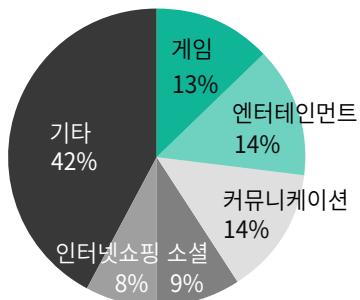
< 결혼여부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 격차 (주당, 평균사용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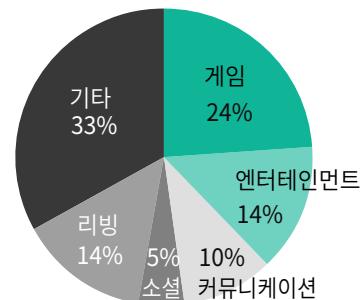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에서 2016.06.27 ~ 2016.10.02 14주간 전국의 만 7세이상 6,09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폰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기혼자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은 주당 평균 26.6시간으로 미혼자의 사용시간(34.7시간) 대비 76.6%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 대비 10.5시간(미혼자: 37.6시간 vs. 기혼자: 27시간) 사용이 적은데 반해 남성의 경우 5.8 시간(31.9시간→26.1시간) 사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절대사용시간 기준으로 기혼여성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주당 평균 27시간)은 기혼남성의 사용시간(26.1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결혼 적령기인 30대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여부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패턴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패턴상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기혼자의 여가관련 앱 사용시간 감소(엔터테인먼트: 7.1시간→4.4시간, 게임: 6.1시간→4.1시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반해, 남성의 경우 카톡, SNS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앱 사용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4.1시간→3시간, 소셜 네트워크: 1.8시간→1.4시간). 결과적으로 30대 기혼여성의 여가관련 앱 사용시간은 전체 사용량의 27% (미혼여성: 전체 34%)에 불과하였고, 기혼남성의 여가관련 앱 사용시간 비중은 전체 사용량의 38% (미혼남성: 전체 37%)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관련 앱 사용비중의 경우 기혼여성은 오히려 증가 (19%→23%)하는데 반해 기혼남성은 감소 (18%→1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대 기혼 남성 vs. 여성의 앱 카테고리 별 스마트 폰 사용시간 비중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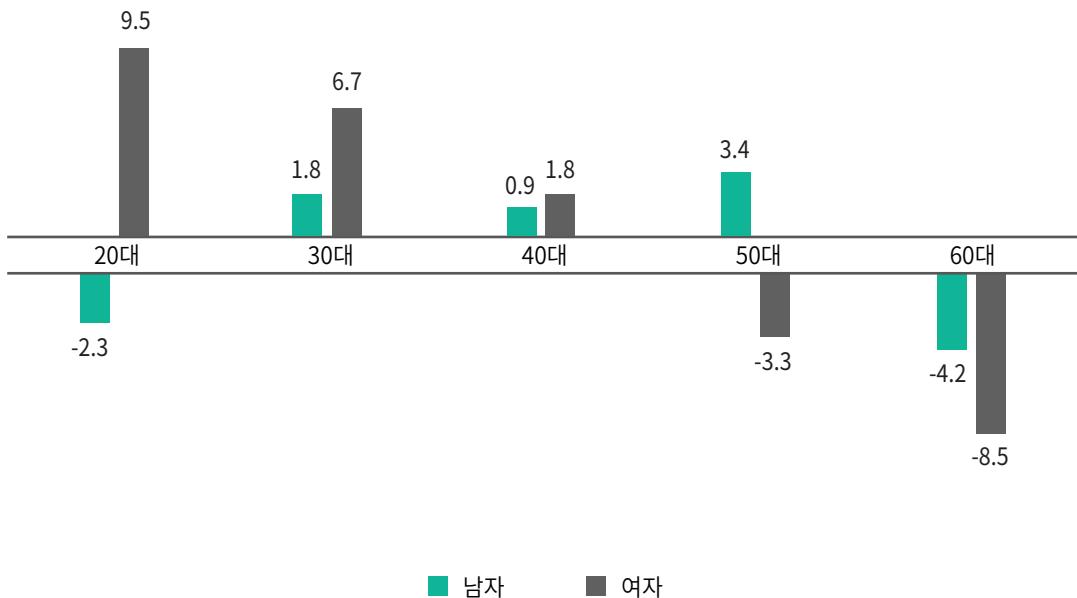
30대 기혼 여성



30대 기혼 남성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사용시간 차이는 20대 9.5시간(미혼: 40.4시간 vs. 기혼: 30.9시간), 30대 6.7 시간(미혼: 37.7시간 vs. 기혼: 30.9시간), 40대 1.8시간(미혼: 31.5시간 vs. 기혼: 29.7시간)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으며, 급기야 50-60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기혼여성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이 미혼 여성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은 결혼여부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시간격차가 그다지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른 사용패턴상의 차이 또한 두드러지게 발생하지 않았다.

<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혼자 대비 미혼자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 차이 (주당, 평균사용시간) >



결혼에 따른 남녀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 격차는 결혼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절대적 사용시간 기준으로 기혼남녀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혼남성이 기혼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 폰 사용에 할애 한다는 의견은 잘못된 편견으로 보인다. 한편, 기혼여성은 미혼여성보다 여가관련 앱 사용비중을 낮추는데 반해, 기혼남성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관련 앱 사용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결혼을 둘러싼 서로 다른 남녀의 스마트 폰 사용 패턴은 상대방의 스마트 폰 사용을 판단하기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촉구한다. 즉, 여성은 결혼 후 남성이 절대적 스마트 폰 사용시간을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상대적 여가 관련 앱 사용비중이 늘어나면서 스마트 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반대로 남성은 결혼 후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마트 폰 사용시간을 줄이고 있고, 특히 여가와 관련된 앱 사용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줄어든 여성과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오프라인으로 가져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다른 서로의 차이를 알고, 이해하며, 맞추어가려는 노력은 부부간 스마트 폰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hapter 6

고소득 가정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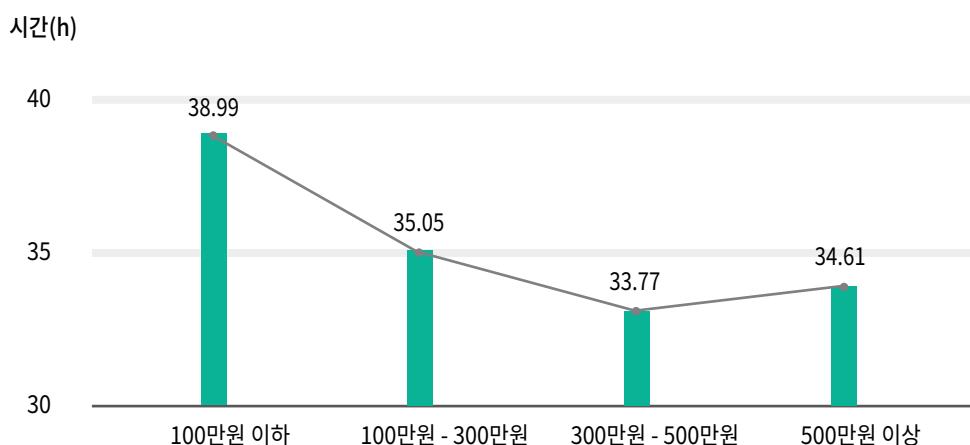
고소득 가정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할까?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감소

단, 고소득 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가장 낮은 것은 아냐

맞벌이 자녀보다 외벌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더 많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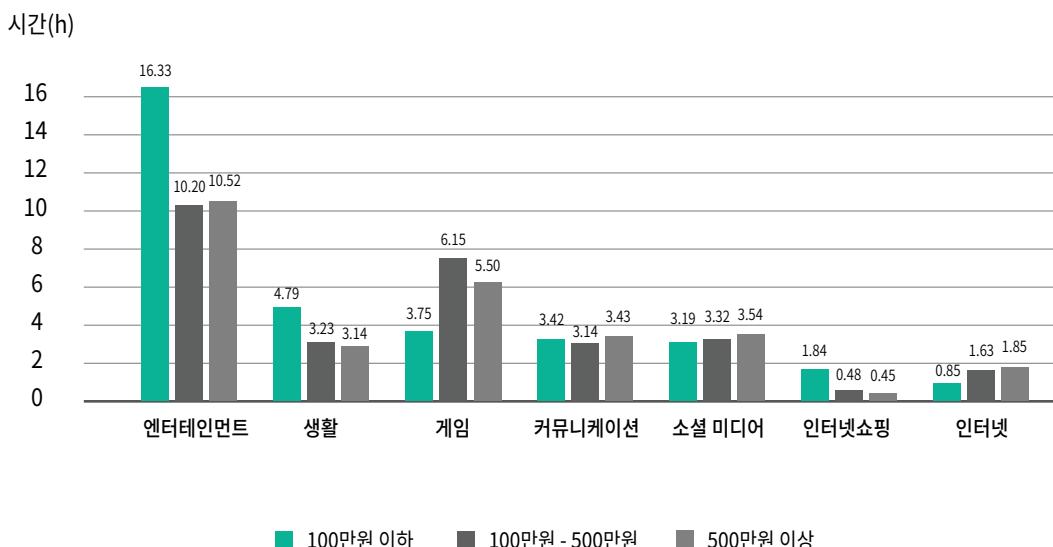
< 소득 구간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주당 평균사용시간)>



부모의 소득과 취업여부에 따라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어떤 행태를 보일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에 서 2016.06.27 ~ 2016.10.02 14주 간 전국의 만 7세이상 만 18세 이하 429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저소득 가정 자녀의 주간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38.99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 100만원-300만원 자녀의 경우 35.05시간, 소득수준 300만원-500만원 자녀의 경우 33.77시간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소득수준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량은 34.61시간으로 소득수준 300만원-500만원 자녀보다 스마트폰을 주간 평균 1.04시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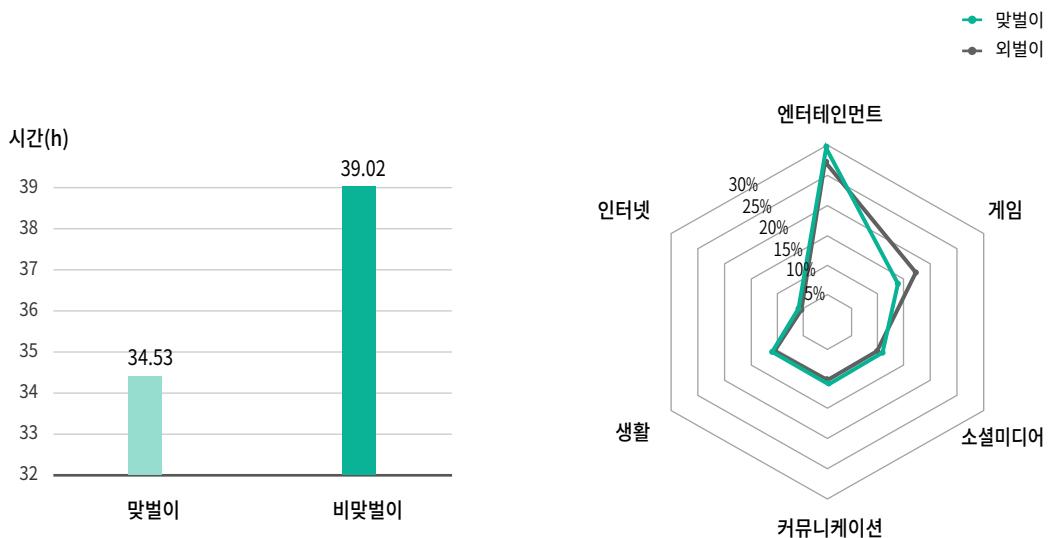
소득구간별 자녀들의 모바일 앱 카테고리별 사용시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엔터테인먼트 앱 사용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게임, 소셜 미디어 앱 사용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를 저소득, 100만원-500만원을 중간 소득, 500만원 이상을 고소득 구간으로 구분하였을 때,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엔터테인먼트(저소득층: 16.6시간 > 고소득층: 10.5시간 > 중산층: 10.2시간), 생활(저소득층: 4.8시간 > 중산층: 3.2시간 > 고소득층: 3.1시간), 인터넷쇼핑(저소득층: 1.8시간 > 중산층: 0.5시간 > 고소득층: 0.5시간) 앱 사용시간이 높다. 반면, 소득수준 1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중산층 아이들의 경우 게임(중산층: 6.2시간 > 고소득층: 5.5시간 > 저소득층: 3.8시간) 앱 사용시간이, 소득수준 500만원이상 고소득층 아이들의 경우 소셜 미디어(고소득층: 3.5시간 > 중산층: 3.3시간 > 저소득층: 3.2시간)와 인터넷 앱(고소득층: 1.9시간 > 중산층: 1.6시간 > 저소득층: 0.9시간)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앱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활 및 인터넷 쇼핑 관련 앱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용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구간별 모바일 앱 카테고리별 사용시간(주당 평균사용시간) >



한편,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외벌이 가정의 자녀보다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자녀: 31.9시간, 외벌이 자녀: 36.8시간).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가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외벌이 부부의 자녀보다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외벌이 부부의 자녀보다 게임 앱 사용비중(맞벌이: 17.1%, 외벌이: 13.7%)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자녀의 스마트폰 주간 평균사용시간 및 사용시간 비중(%)>



부모의 소득수준 및 취업 유무에 따른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및 사용패턴을 비교한 결과, 첫째,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량이 가장 적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고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다른 그룹의 아이들보다 소셜 미디어 및 인터넷 사용비중이 높았다. 둘째,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룹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 아이들이었다. 따라서, 게임중독 위험군은 오히려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외벌이 가정의 아이들보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외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외벌이 가정의 아이들보다 게임 앱 사용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 사용자체보다는 게임사용에 대한 주의가, 외벌이 부부 아이들에게는 게임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주의가 보다 강조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chapter 7

스마트 폰, 일에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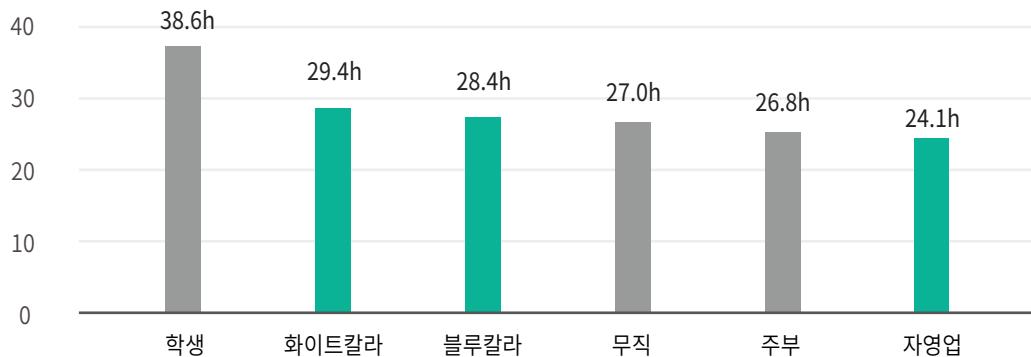
스마트 폰, 일에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직종별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화이트칼라>블루칼라>자영업 순

화이트칼라는 생활, 블루칼라는 게임, 자영업자는 금융 앱 사용시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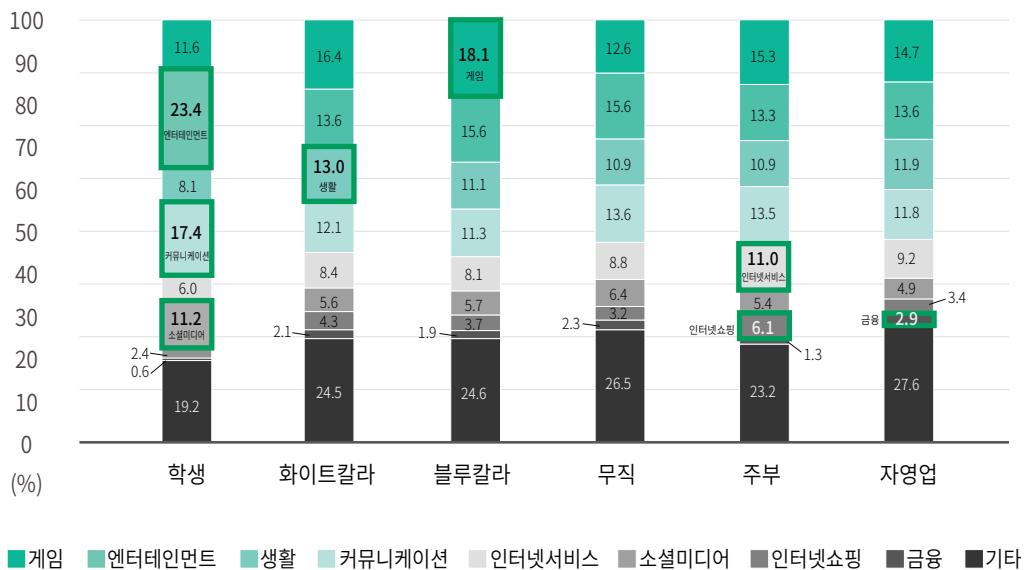
자영업자의 스마트폰 사용 활성화 방안, 정책 필요

<직업별 스마트 폰 사용시간 (주당, 평균사용시간)>



스마트 폰은 일하는 데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에서 2016.06.27 ~ 2016.10.02 14주간 전국의 만 19세이상 5,553명을 대상으로 직업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량을 비교 조사한 결과, 직업에 따라 스마트 폰 사용시간 및 사용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용시간의 경우 대학생이 주당 평균 38.6시간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뒤이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사용량이 각각 29.4시간, 28.4시간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자영업자의 사용량은 주당 평균 24.1시간으로 타 직업군에 대비하여 가장 낮은 사용시간을 보였으며, 이 같은 수치는 직업이 없는 무직자(26.8시간)와 주부(27시간)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앱 카테고리 사용시간 비중 (%)>



■ 게임 ■ 엔터테인먼트 ■ 생활 ■ 커뮤니케이션 ■ 인터넷서비스 ■ 소셜미디어 ■ 인터넷쇼핑 ■ 금융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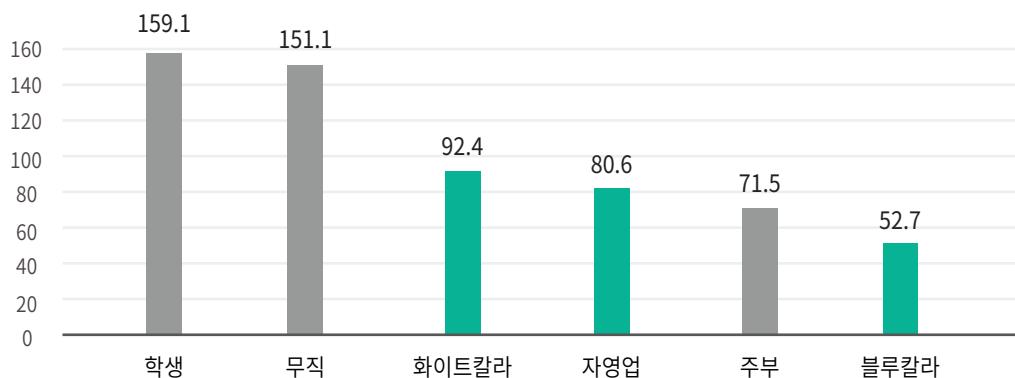
이러한 직종별 스마트 폰 사용시간 차이는 카테고리 별 사용시간 비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화이트칼라의 경우 타 직업에 비해 생활 앱의 사용비중이 높은 반면(13%), 블루칼라의 경우 게임 앱 사용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18.1%). 자영업자는 금융관련 앱(2.9%) 사용비중이 타 직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대학생의 경우 카카오 톡을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 카테고리(17.4%) 및 SNS를 포괄하는 소셜 미디어 앱(11.2%) 사용시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 세부카테고리 사용비중 비교 (%)>



한편, 주요 카테고리(게임, 엔터테인먼트, 생활, 교육)내 세부 카테고리 사용시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자영업자의 스마트폰 앱 사용에 있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먼저, 게임 앱의 경우 일반적으로 퍼즐게임의 사용비중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고스톱, 모두의 마블과 같은 보드게임의 사용시간 비중(전체 게임 사용시간 중 16.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엔터테인먼트 앱의 경우 직업에 관계없이 동영상 앱의 사용비중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자영업자의 동영상 앱 사용비중(45.5%)은 타 직업군(36.6%)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생활 앱의 경우 자영업자의 지도/교통 관련 앱 사용비중(30.1%)이 타 직업의 평균 사용시간비중(15.8%)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앱의 경우 구직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무직자들의 사용시간비중은 높았으나 (각각 159.1분, 151.1분),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미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타 직업 군에서의 사용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74.3분).

<직업별 교육카테고리 평균 사용시간 (주당, 분)>



직업별 스마트 폰 사용패턴을 살펴본 결과 직업에 따른 사용자의 사용시간 및 사용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영업자의 사용패턴은 타 직업군에 비해 크게 다른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용시간은 가장 낮았지만, 금융 앱 및 기타 지도/교통 관련 앱과 같은 생활밀착형 앱 사용비중은 타 직업군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 사용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강도가 높아 전체 사용시간은 작은 반면, 자율성에 기초한 사용이 오히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낮은 교육 앱 사용은 현재의 활용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 Free Agent의 증가는 자영업자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앱 개발에 대한 필요와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앱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이 촉구되는 바이다.

MEMO

MEMO

BARUN ICT RESEARCH CENTER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올바른 ICT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설립됐다. 스마트 감성시대에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슈를 연구하여 'IT로 보다 행복하고 연결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진 및 기업/공공기관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열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